

대한민국 여권,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

대한민국 여권이 32년 만에 녹색 옷을 벗고 남색으로 갈아입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색이 남색 계열로 잠정 정해졌기 때문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2022)을 발표하면서 2007년 여권 디자인 개선 공모전 최우수작(서울대 김수정 교수)을 토대로 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밑그림을 공개했다.

현재 일반이 사용하는 여권은 진녹색 바탕 중앙에 금박 국장(國章)이 있다. 이를 짙은 청색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며 국장 크기와 위치도 달라진다.

1994년 기계판독여권, 2005년 사진전사식 기계판독여권, 2008년 전자여권 등 여권 형태와 양식이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표지만은 녹색이 유지된 것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녹색 여권이 사용된 것은 1988년부터"라면서 "예정대로 2020년부터 남색 여권이 쓰이게 되면 32년 만에 바뀌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녹색 여권이 촌스럽거나 문화적 맥락에서 한국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간간히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초록색 여권을 사용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



▲ 2020년부터 한국 여권의 디자인이 바뀔 예정이다.

가 대다수'라며 표지를 파란색으로 변경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속지에는 페이지마다 각기 다른 우리 문화재 문양이 새겨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여권에는 6개 원안에 들어간 당초와 작은 삼태극 문양 아래 승례문과 다보탑이 번갈아가며 찍혀 있다.

김수정 교수는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우리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다양한 우리 문화재를 실어 사람들이 박물관을 보는 느낌을 받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재를 실을지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색 보정과 글씨체 보완 등 아직 세부적인 과정이 남아 있다."라면서 "올해 말까지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추진" ... 2020년부터

한국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2022년 5월) 안에 군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까지 줄이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 대통령 임기 말에 입대하는 장병이 18개월을 복무하도록 하는 것과 임기 말에 전역하는 장병이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것 등을 고려 중인데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언제부터 군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최종 검토 중인데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종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말씀드릴 것"이라며 "변동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방침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내에 3개월 군복무 단축을 완성하려면 역산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돼야 한

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까지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 일자도 앞당겨진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육·해·공군의 병력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장병의 복무기간도 18개월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천여 명, 공군 6만3천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등이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